

제주공항 급변풍 정보, 정식 서비스 개시

- 최대 3일 전 급변풍 발생 가능성 정보 신규 제공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1월 1일(수),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공항 급변풍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주공항은 지형적 특성*으로 급변풍이 자주 발생하며, 그로 인해 국내 공항 중 항공기 회항도 가장 많은 곳이다.

* 한라산의 북쪽에 위치한 제주공항은 강한 남풍이 한라산을 넘거나 좌우로 돌아오며 급변풍 현상 발생 빈번

기존에는 바람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급변풍 발생 직전 또는 직후에 제공하였으나, 새로운 서비스는 관측자료 외에 수치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최대 3일 전에 급변풍 발생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급변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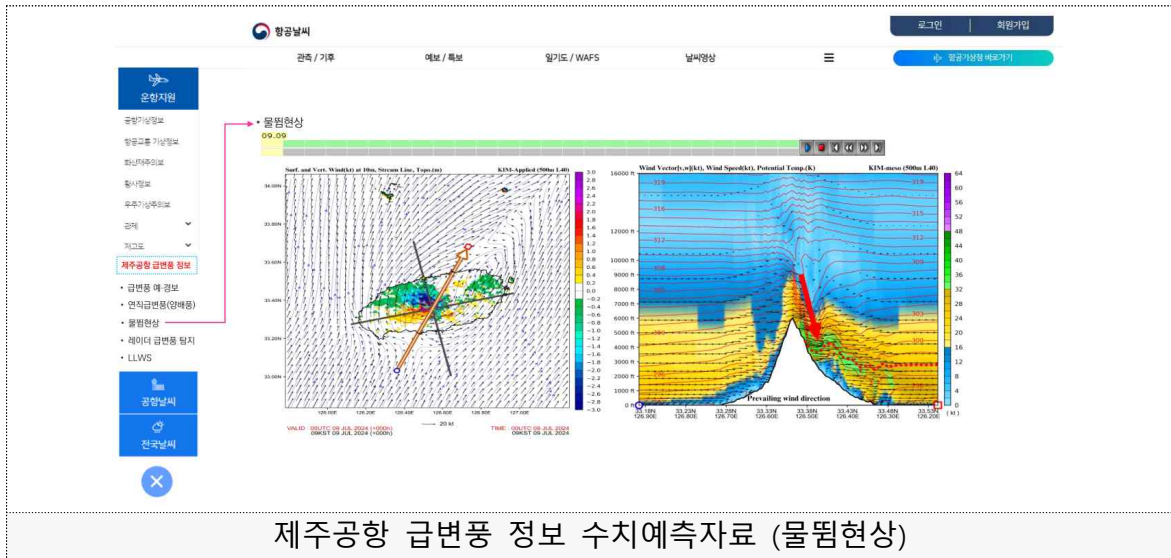
이 서비스는 올해 10월부터 정보 생산 체계를 점검하고, 항공사의 의견을 들어 수치예측자료 해석을 추가하는 등 정보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범 운영의 기간을 거쳐 정식 도입되었다.

기상청은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제주공항에 공항라이다와 연직바람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급변풍 관측망을 확충하고, 급변풍 사전징후를 탐지하는 고해상도 수치예측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제주공항에 급변풍이 예상될 경우 최대 3일 전에 급변풍 발생 가능성과 그 원인을 항공사에 우선 제공하고, 하루 전에는 예상 발생 시간과 비정상 운항 가능성까지 포함한 상세 정보를 공항기상 정보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기상청은 항공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급변풍 예보에 활용된 분석 자료와 수치예측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항공사에서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급변풍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 항공날씨(<http://global.amo.go.kr>): 조종사, 운항관리사 등 항공운항 종사자를 위해 항공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전문가용 누리집
 - 항공날씨 > 운항지원 > 제주공항 급변풍 정보



장동연 기상청장은 “제주공항 급변풍 정보 서비스는 그동안 제주공항의 혼잡과 체류객을 초래하던 급변풍과 관련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항행 안전성을 높이고 운항 비용과 항공 여행객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며, “앞으로도 기상청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 운항에 이바지하기 위해 항공기상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항공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 용 석 (032-222-3020)
		담당자	사무관 정 태 균 (032-222-302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